

# 남해 만남·교류의 장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성료

장금성기자 | 승인 2024.12.18 14:52 | 9면

독일 문화·역사·음악이 어우러진 문화와 음악의 밤/독일인·독일어학과 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 힐링 시간



▲ 남해관광문화재단 '2024 독일마을 스쿨링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남해군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추진한 '2024 독일마을 스쿨링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추진한 스쿨링 캠프는 독일마을에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와 외부 방문객들이 독일의 생활문화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독일인과 독일어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캠프 참가자들은 독일마을 마을 호텔에서 숙박하며 독일마을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파독 다큐멘터리 관람, 주민과의 토크쇼, 독일 문화의 밤, 독일 음악의 밤' 등이었다.

또한 독일마을 어반스케치, 소시지만들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지족해협 죽방렴, 금산 보리암, 내산마을 등을 둘러봤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제1회 독일마을 스쿨링캠프는 마을 주민과 캠프 참여자간의 직접적인 교류 활성화의 출발점이 됐다”며 “2025년 남해군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내년 캠프에서는 다양한 독일 문화 체험과 주민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자주 찾아오고 싶은 정겨운 독일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금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금성기자